

조선시대 經絡圖에 관한 고찰

¹한봉재, ²안상우, ¹김남일*

¹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²한국한의학연구소

A Study of Meridian and Collateral Diagrams of Chosun Dynasty

¹Han Bong Jae, ²Ahn Sang Woo, ¹Kim Nam Il

1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2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s

The Meridian and Collateral Diagra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圖像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 圖像 is a picture made on a two-dimensional surface using lines and colors to portray an object or an image. Meridian and Collateral diagram is a 圖像 of the human body with indications of acupoints and meridian passageways and have different names such as 經穴圖, 輸穴圖, 鍼灸圖, 明堂圖, 銅人圖, in accordance with its classification. The documental basis of the Meridian and Collateral Diagram is the Internal Classic and the very first Meridian and Collateral Diagram confirmed through textual evidence can be found in 葛洪 's 『抱朴子·雜應』. The Korean 동인도 in existence today, called '銅人明堂之圖', exists in two versions; a hand-copied version and a wooden engraving block version. It displays all the locations of the acupoints located on the anterior side of the human body, labels the names of the acupoints, and specifically distinguishes 起始穴 and 終止穴 of the eight meridian vessels.

keywor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hosun dynasty, meridian and collateral diagram

서론

經絡圖는 한의학 문헌에 수록된 중요한 圖像의 하나이다. 圖像은 선이나 색채를 써서 사물의 형상이나 이미지를 평면 위에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수단이며, 글로 표현하지 못한 생각이나 감정을 압축적으로 담을 수 있다. 한의학의 이론은 대부분 문자로

표현되고 전수되어져 왔으나, 의서에 실린 圖像도 저자의 생각을 보충하고 또한 함축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東醫寶鑑』의 內經篇에 실린 '身形臟腑圖'가 허준의 도교적 인체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醫學入門』의 '先天圖'가 인체에 관해 논하기 이전에 인간을 둘러싼 자연을 더욱 중요시한 의학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의서에 실린 圖像은 더욱 많고, 또한 다양하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해 본 圖像은 『東醫寶鑑』은 장부도이다. 또 진단과 관련하여 觀形色圖와 三關圖, 그리고 眼科와 관련된 五輪八郭圖 등이 있

* 교신저자 : 김남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02-961-0672
E-mail : southkim@khu.ac.kr

으며 운기와 관련된 五運六氣圖와 方位圖 등이 있다. 또, 현재는 의학적으로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있으나 과거에는 의학적 치료로 널리 활용되었던 부적이 『醫方類聚』와 『鄉藥集成方』, 『醫林撮要』와 『東醫寶鑑』에 다양하게 실려 있다. 이외에도 본초에 관한 그림과 치료용으로 쓰인 시술도구에 관한 圖像이 있다. 本稿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圖像중 조선시대의 經絡圖 몇 폭을 수집해서 그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경락은 인체내의 기혈운행의 통로로서 臟腑와 肢節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며²⁾, 또한 이러한 경락의 진단을 통해 병의 원인과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³⁾ 그리고 경락이론에 의거하여 침과 뜸, 약 치료를 통해 병을 치료하며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도 한다. 이렇듯 경락이론은 한의학의 중요한 이론 중의 하나로, 오랜 역사에 걸쳐 수많은 경험과 이론 연구를 통해 부단히 발전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黃帝內經』에서 밝힌 경락의 이론을 토대로 여러 의가들이 경락을 연구하고 전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經絡圖는 글이 아닌 그림으로 한눈에 파악할 있도록 만든 圖像이다. 즉, 經絡圖는 인체 그림에 경혈과 경락노선을 표시한 도상으로 글로 전달하기 어려운 경혈과 경락노선을 쉽게 파악하여 연구하고 그것을 후인에 전수시키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침구치료를 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러한 경락도를 제작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圖像에 관한 연구는 이제까지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에서 한의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론

1. 經絡圖의 분류와 기원

- 2) 『靈樞·海論』 ‘夫十二經脈者 內屬於府藏 外絡於肢節’ - 金澹鎬 編譯 『注解補註 黃帝內經 靈樞』, 醫聖堂, 2002, p726
- 3) 『靈樞·衛氣篇』 ‘能別陰陽十二經者 知病之所生 候虛實之所在者 能得病之高下’ - 상계서 p976

經絡圖⁴⁾는 경혈과 경맥노선을 인체그림에 표시한 것으로 비슷한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경혈을 표시하였다는 의미에서 經穴圖 또는 腧穴圖이라고 하며, 침을 놓고 뜸을 뜨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鍼灸圖, 인체의 명당 자리를 표시한다는 의미에서 明堂圖⁵⁾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明堂圖라는 용어는 대부분 경락도의 역사에 있어서 비교적 초기에 제작된 것에 붙여졌다. 또 唐 이전의 전통적 명당도는 ‘偃側圖’라고 불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전신의 경혈을 표시한 圖像을 말한다. 드물기는 하나 인체를 끊임없이 순환하는 경락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環中圖⁶⁾라는 용어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평면의 正(正), 背(背), 側(側) 경락도를 삼차원 입체 형식으로 표현하면 자연히 입체적인 인체 침구수혈모형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수혈모형이 기타 자료들을 제작하는데 유용하다 할지라도 고대에는 銅으로 제작한 것이 절대다수를 차지했

- 4) 本稿에서 經絡圖의 의미는 경혈도와 수혈도, 명당도 및 동인도 그리고 침구도와 경맥도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黃龍祥은 『中國鍼灸史圖鑑』에서 이러한 종류의 圖像을 크게 明堂圖와 經脈圖로 나누어 經穴을 위주로 제작된 수혈도와 동인도 등을 명당도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십이경맥과 기경팔맥의 유주노선을 위주로 제작된 도상은 경맥도로 정의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명당도와 경맥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經絡圖라고 지칭한다.
- 5) 明堂이라는 용어는 현대에는 주로 풍수지리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나 원래의 의미는 고대에 제왕이 政敎를 펴는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한의학에서는 황제내경에 雷公이 인체경락과 혈맥에 대해 질문하자 黃帝가 明堂에 앉아 그것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후세의 의가들이 인체의 경락과 침구혈위를 표시한 그림을 明堂圖라고 불렀다. - 辭源(縮印合訂本),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7, p763
그리고 明堂이라는 단어를 차용하여 혈자리의 의미로 사용하게 된 것은 『黃帝明堂經』이라는 책에서 기원한다. 이 책은 현재까지 알려진 최초의 침뜸의학 전문서적으로 지은이는 분명하지 않으며, 秦나라시대 전후의 책이라고만 알려져 있다. 그 원본은 없어지고 魏晉이후에 이와 관련한 여러 명칭을 가진 傳本과 注本이 생겨나게 되었다. - 김남일·이재동 공편,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집문당, 1997, pp51-52
- 6) 대표적으로 宋代 楊介가 編한 『存眞環中圖』가 있다. 存眞은 장부를 가리키고 環中은 경락을 가리킴. 이는 12세기 초 북송의 지배층이 처형된 시체를 이용하여 의원과 화공을 보내어 그리게 하고 또 楊介의 考訂校正을 거쳐 冊을 만들었음. 본서는 작자가 인후에서 흥복강의 각 장부에 이르는 해부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경락의 연계, 수곡의 泌別, 정혈의 운수 등의 정황에 대하여 비교적 세밀하게 관찰하였음. 이는 중국에서의 비교적 초기의 인체해부도보인데, 아깝게도 亡佚되었음 - 한의학대사전, 의사문헌편,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1985,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p278

고 銅人에 이르기까지 역시 각 종류의 인체경혈모형의 통칭이 되었다. 이리하여 경혈도는 “銅人圖” 혹은 “銅人明堂圖” 라는 두 번째 별칭을 갖게 되었는데 특별히 침구동인에 근거해 제작된 腧穴圖를 銅人圖라 이른다. 침구교육과 임상에서 침구동인과 그 그림의 영향이 점점 커짐에 따라 鍼灸銅人과 銅人圖는 거의 침구의 상징 혹은 표식이 되었다.⁷⁾

경혈과 경맥의 유주노선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腧穴圖, 經脈圖 및 銅人圖는 같은 점이 있다. 다만, 옛 의가들이 14경맥의 각 경맥도를 그릴 때에는 경맥지식에 대한 정보 전달은 물론, 다소 미술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각 경맥노선이 잘 나타나도록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머리모양이나 옷, 장신구 등을 유려하게 표현하였다. 醫家 자신이 그린 것도 있을 것이며 그 시대의 화공이 그린 것도 있으리라 짐작되는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돋보이는 것은 『十四經發揮』에 실린 經脈圖이다.

그렇다면, 經絡圖는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그려졌을까? 먼저 經絡圖의 역사적 연원을 살펴보자면 『黃帝內經』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靈樞』의 經脈에 관한 기록이 經絡圖 제작의 문헌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靈樞』에서는 인체의 경맥 유주노선을 상세하게 밝혀놓았다.⁸⁾ 문헌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경우, 隋唐시기에 이르러서이다.⁹⁾ 최초의 經絡圖는 갈홍의 『抱朴子·雜

應』 중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데, 다만 만든 사람이 누구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이름을 고증할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은 南朝 劉宋醫家の 秦承祖¹⁰⁾이다.

‘秦承祖明堂圖’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孫思邈의 『千金翼方』에서 ‘秦承祖圖’라고 칭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이 圖像의 착오는 甄權¹¹⁾의 수정을 거쳐 ‘明堂人形圖’¹²⁾로 다시 새롭게 그려지게 되며 이후의 明堂圖들은 甄權의 圖를 많이 模寫하였다고 한다. 이 圖像들은 애석하게도 모두 망실되었다. 孫思邈도 침구도의 제작을 매우 중요시하여, 『千金翼方』중에서 “혈자리가 어렵고 불분명한 것은 그림이 아니면 안된다(孔穴難語 非圖莫可)”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을 기초로 唐代에 이르러 孫思邈은 다섯 가지 색을 이용해 그린 三人明堂圖를 창안했고(이는 후세의 동인명당도의 제도와 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 후에 唐代의 왕도(王焘) 역시 채색을 하여 十二人形明堂圖를 만들었다. 이 두 종류의 명당도는 모두 소실되었고 단지 문자로만 남아 있

대략적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明堂圖는 인체를 1/2로 축소하여 혈위를 표시하였으며 정부의 지원 아래 많은 도보가 작성되었고, 그 결과 학생을 가르치는데 도보를 이용하여 시범을 보임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과 의생들의 취혈이 편리하게 되었다. - 맹웅재 외, 강좌 중국 의학사, 대성의학사, 2006, pp142~143

7)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上』, 靑島出版社, 2003, p5

8) 『黃帝內經』이 침구학설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한의학의 기본이론과 침구학에 관한 많은 내용이 실려 있는 『黃帝內經』은 경락이론에 대해 비교적 완벽하게 서술하였다. 『靈樞』의 本輸篇에서 가장 먼저 경락이 임상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였고, 經脈篇과 脈度篇, 骨度編篇등 여러 편에서 맥의 개념 및 ‘經’과 ‘絡’의 차이점, 상호관계를 설명하였다. 『靈樞』의 逆順肥瘦篇에서는 手足의 삼음삼양이 흐르는 방향을 설명하였고, 『素問』의 調經論에서는 경락의 병변과 인체의 성장 및 노쇠 과정을 자세히 논술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측면에서 경락이론을 논술하여 후세 의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9) 隋唐 시기에는 정부에서 침구학을 상당히 중요시하여 唐代의 太醫署에는 鍼灸科를 설치하였다. 또, 칙령을 내려 甄權, 甄立言, 謝季卿 등 여러 의가에게 明堂圖를 수찬하게 하고 經과 圖를 교정하였다. 이 이후부터 甄權의 明堂經과 圖가 전국으로 퍼졌다. 현재 甄權의 明堂圖는 散佚되었으나 孫思邈의 『千金方』의 鍼灸篇에서 明堂圖의

10) 그는 약물을 사용하여 병을 치료한 것 뿐만 아니라 침뜸에도 뛰어났다고 한다. 『千金翼方』권26의 ‘取孔穴法’에는 그의 孔穴圖가 기재되어 있고, 『黃帝內經太素』권11 ‘氣穴’에는 그의 『明堂』이 양성선의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저술로 『假側雜鍼灸經』 3권, 『脈經』 6권, 『假側人經』 2권, 『秦承祖本草』 6권, 『明堂圖』 3권, 『傷寒散論』 2권 등이 있다고 하지만, 모두 전해지지 않는다. - 김남일·이재동 공편,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집문당, 1997, p165

11) 수당시대에 활동한 의학자. 침술과 脈理에 뛰어났다고 하며 동생 甄立言과 함께 의학을 학습하여 명의를 되었는데, 특히 침구술에 뛰어났다고 한다. 정관(貞觀: 627~649) 연간에 明堂圖를 교정하라는 칙명에 따라 司馬德逸, 謝季卿, 甄立言 등과 함께 명당도를 교정하였다. 애석하게도 이 명당도는 전해지지는 않으나, 손사막의 저서에서 그의 명당도를 유추할 수 있다. - 상게서 p206

12) 『唐書藝文志』에 『明堂人形圖』 1권 이라고 수록되어 있는데, 이 책은 『東醫寶鑑』에 唐, 甄權의 作으로 되어 있다. 이 甄權의 圖는 唐初의 『千金方』 卷二十九에 ‘舊明堂圖 年代久遠 傳寫錯誤 不足指南 今一依甄權等新撰爲正云’이라는 것과 같이 『千金方』을 편술할 때에 채록된 것이다. 이 명당도는 경락공혈의 순행하는 경로와 부위를 논하는 도경이므로 당시의 외과술에 소속된 침구술을 행하는 기본적 지식을 얻는 유일의 敎書일 뿐 아니라, 경락공혈의 부위를 표시한 것이므로 인체골격에 관한 해부학적 지식을 자연히 얻게 된다. - 金斗鍾, 韓國醫學史, 探求堂, 1981, p69

어 정확한 실체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經絡圖는 1900년 敦煌에서 출토된 唐代 經絡圖의 잔존품이고, 완벽한 상태로 보존된 것으로는 북송 초년의 『太平聖惠方』과 『銅人腧穴鍼灸圖經』 등에 있는 것이다.¹³⁾ 특히, 宋代 1027년에 침구서적 편찬의 명령을 받고 太醫局翰林醫官, 殿中省尙藥奉御 등을 역임한 王維一이 2개의 동인을 주조하는 동시에 『銅人腧穴鍼灸圖經』 一部를 저작하였다.¹⁴⁾ 이 銅人 腧穴圖經은 후세 침구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남겼다. 元의 忽必泰가 지은 『金蘭循經』은 이것을 기본으로 했고, 滑壽의 『十四經發揮』은 『金蘭循經』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十四經發揮』은 지금까지 침구학자들이 取穴定位하는 기본으로 삼고 있다.¹⁵⁾

이후, 經絡圖는 여러 의가들에 의해 그려졌다. 經絡圖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체에 정확한 경혈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에서 제작되었으며 또한, 의학을 처음 배우는 초심자들에게 경혈과 경맥의 위치와 노선을 가르치기 위해 제작되기도 하였다.

경혈과 경맥이 표시되는 經絡圖는 침구학의 발전에 따라 그 완성도가 달라진다. 현재의 침구학의 근간이 되는 경맥이론은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전해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의가의 연구와 노력에 의해 형성된 이론이다. 중국의 ‘馬王堆帛書’의 출토로 밝혀진 사실은 그것을 증명한다. 즉, 經絡圖를 보면 그 당시의 경맥이론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경맥이론의 근접한 이론은 明代에 나온 많은 침구종합의서에 기인한다. 『鍼灸大成』은 그 대표적 저작이다. 이 책에는 또한 여러 종류의 圖像을 실고 있어서 후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 조선시대 이전까지의 經絡圖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언제부터 經絡圖가 제작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침구치료가 행해진 시기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다만, 기록상으로 유추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시대 때 吳人 知聰이 고구려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이때 방서 內外典 중 『黃帝鍼經』과 『明堂圖』의 「明堂孔穴圖」 등에 근거하여 鍼術에 관한 지식이 진전되었을 것이라 추측한다.¹⁶⁾ 즉, 이 때 침술에 관한 지식을 연구하고 전달하는 과정 중에 전해진 醫書¹⁷⁾를 토대로 經絡圖 또한 제작되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¹⁸⁾

통일신라시대에는 문헌에 나타나는 최초의 의학 기관에 관한 기록이 있으니 『三國遺事』에 孝昭王 元年에 ‘醫學’이라는 기관을 처음 설치하여 『本草經』, 『甲乙經』, 『鍼經』, 『素問經』, 『脈經』, 『明堂經』, 『難經』 등 7과목을 가르쳤다고 하였다. ‘醫學’은 唐¹⁹⁾의 의학교육제도를 본뜬 것으로 唐시기에는

16) 맹용재 외, 한의학통사, 대성의학사, 2006, p60

17) 金斗鍾은 『韓國醫學史』에서 知聰이 가지고 온 의서를 다음과 같이 추측하였다. 이 의약서 164권에는 『黃帝內經』 18권과 『脈經』 10권, 『難經』 2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神農本草』 4권, 『名醫別錄』 3권, 『黃帝甲乙經』 10권, 『明堂孔穴圖』 3권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漢書 藝文志』와 『隋書 經籍志』에 기록된 의서를 추측한 것이다. -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81, p30 『隋書 經籍志』에 기록된 많은 침뜸의학 서적은 전란 등을 거치면서 소실되었지만 목록을 보면 침법, 구법, 취혈법, 경맥의 유주, 鍼灸圖, 孔穴圖 등에 관해 활발히 논의되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明堂孔穴圖, 偃側圖, 明堂蝦蟇圖, 鍼灸圖經, 十二人圖 등의 서적명이 보여주듯 이 시기에도 경혈과 경맥을 명확하게 하고자 많은 연구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남일 · 이재동 공편,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집문당, 1997, p152

18) 중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교류는 이미 기원전 2세기부터 시작되었다. 541년에는 梁 武帝가 고구려의 요청에 따라 의사를 파견하였다. 그리고 신라에서는 ‘醫學’을 설치하고 醫學博士2인을 두기도 하였다. 그 학제는 唐을 모방하여 본초경, 감을경, 소문, 침경, 맥경, 명당경, 난경 등을 교재로 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다. 한편 한국으로부터 약재와 의학지식이 중국으로 전해지기도 하였다. -맹용재 외 지음, 강좌중국의학사, 대성의학사, 2006, p145

19) 당태종은 明堂鍼灸圖에 그려져 있는 오장이 모두 등쪽과 가까운 것을 보고 침을 잘못 놓았을 때 목숨과도 관계될 것이라고 여겨, 태의서의 醫生과 鍼生들의 침구학습을 엄격히 할 것을 하교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침생들은 甲乙經과 脈經을 반드시 읽을 것이 요구되었다. 당나라 시대는 침뜸의학이 정식으로 전문과목으로 개설되어 침뜸의학의 학술수준은 상승하였고, 전문적 연구자들의 출현에 의해 채색된 明堂圖가 출현하여 이론과 실제의 양측면에서 발전하게 된다. 당나라는 한국의 침뜸의학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A.D.692년 신라에서는 당나라의 제도를 본떠 ‘醫學’이라는 교육기관을 설

13) 『各家鍼灸學說』,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과학교실 2008년 1학기 대학원 교재, pp18-19

14) 김남일 · 이재동 공편,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집문당, 1997, p233

15) 洪元植 編著,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1987, p149

침뜸의학이 정식과목으로 채택된 시기이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에는 의박사 2인을 두어 국가적 차원에서 의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때에는 이전보다 더 상세한 경락도가 제작되었을 것이다. 경락도의 제작은 보통 침구이론의 학습에 사용되어 연구자들에게 정확한 경맥과 경혈을 찾는 데 필요하게 된다. 또한 의사를 선발하는 시험에서 사용되어지며 임상활용에서는 진단과 정확한 취혈을 위해 필요하게 된다. 즉, 의학기관에서는 학습과 시험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연히 경락도를 제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므로 활발하게 제작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후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초 고려는 문화의 번영기에 들어서는데, 고려문화의 발전사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인쇄술과 출판업의 발전이다. 11세기에 고려의 조판인쇄술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어서 상당량의 서적을 간행할 정도였다. 예로 고려대장경의 출판은 고려의 인쇄출판업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고려시대 의학에 있어서는 진맥, 침구, 외과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었으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민간치료에 널리 응용되었다. 이와 함께 『鄉藥救急方』, 『鄉藥惠民和劑局方』과 같은 여러 의학서들이 출판되어 나왔다. 이들 의학서들은 외국에 수출되기도 하였다.²⁰⁾ 고려시대 과거제도 醫科의 응시과목을 보면, 『明堂經』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동시대의 唐나라에서는 明堂經, 流注圖, 偃側圖 등이 있었다. 이렇게 볼때 고려시대에는 이전의 의학적 성취를 바탕으로 인쇄술이 발전하여 경락도의 제작은 더욱 활발하였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아 동시대의 중국 의서를 통해 그 윤곽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3. 조선시대 태종때 제작된 銅人圖

치하고, 감을경, 소문, 침경, 맥경, 명당경, 난경 등을 가르쳤고, 다시 693년에는 鍼博士를 두어 침뜸의학을 교육시켰다고 한다. - 김남일 · 이재동 공편,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집문당, 1997, p178

20) 맹웅재 외, 한의학통사, 대성의학사, 2006, p109

銅人圖²¹⁾는 경락도의 하나로 특별히 銅人²²⁾ 제작을 위해 그려진 것이다. 銅人의 제작은 침구학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표준화된 경혈과 경맥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교육과 임상에서 경맥이론과 관련하여 통일된 교육과 진료를 할 수 있으므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중국 의서의 수입에 깊은 관심을 보여 모든 중국 의서를 갖추어둘 것을 하명하였고, 조선의 사신이 중국에 오갈 때마다 중국의 의서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돌아갔다. 그리하여 당시 조선이 소장하고 있던 중국 의서는 213종에 달했으며 후일 『醫方類聚』를 간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의서로 활용되었다.²³⁾ 『朝鮮王朝實錄』에는 태종 때 銅人圖의 제작과 반포에 관한 사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다.²⁴⁾ 당시, 국가적 표준으로 삼을 만한 銅人圖가 존재하지 않아 중국에 제대로 된 銅人圖를 제작해줄 것을 요청하여 銅人圖 몇 폭을 받게 된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람의 체형에 맞게 다시 제작하여 널리 배포한 기록이 있다. 『朝鮮王朝實錄』에서 구체적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문헌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제일 처음 직접적으로 침구 동인에 근거를 두고 제작된 銅人圖는 북송의 명의 석장용(石藏用)이 사용한 것으로 원래는 정인(正人)과 복인(伏人) 각 한 폭이다. 明 成化十年(1474)에 진강부 사소(鎭江府 史素)가 석장용의 正人, 伏人圖를 수정하고 채색하여 再刊하였는데 그 십이경혈은 다섯가지 색을 사용하고 임맥과 독맥의 혈은 녹색을 써서 표시하였다. 그 후 明 구준(丘濬)이 다시 수정하였는데 그림에 오장 육부와 골격의 내용을 더 넣고 오색으로 채색하여 제작하였다. -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 上』, 靑島出版社, 2003, p240

22) 銅人은 표준 인체 모델로 제작된 모형에 경락과 경혈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의료 학습 및 임상용 도구이다. 이러한 침구 동인의 초기 제작은 고대 중국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秦나라 때부터 銅人을 제작하여 醫官들의 침구 실습용과 시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孫仁喆, 침구동인의 발달과 변천과정연구, 대한침구학회지 제15권 제2호, 1998, p552

23) 맹웅재 외 지음, 강좌중국의학사, 대성의학사, 2006, p277

24) 崔秀漢도 그의 『朝鮮醫籍通考』에서 朝鮮版中醫書의 항목 중 침구편에 『銅人鍼灸圖』 2폭을 들고 태종시기의 기사를 인용하였다. -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202

1415년 태종 15년 4월 22일

공안부 윤(恭安府尹) 오진(吳眞)을 경사(京師)에 보내어 천추절(千秋節)을 하례하게 하였다. 예부(禮部)에 자문(咨文)을 보내었다. “의약(醫藥)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 진실로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 나라는 외따로 해외에 떨어져 있는데다가 침구(針灸)의 방서(方書)도 적고, 또 훌륭한 의원(良醫)도 없는 까닭에, 무릇 병을 앓게 되면 경락도(經絡圖)를 살펴가며 침도 놓고 뜸도 뜨지만, 흔히 효험을 보지 못합니다. 만약 주문(奏聞)에 힘입어 동인(銅人)을 내려 주어서 이를 본받아 시행하게 한다면, 대단히 편익(便益)하겠습니다.”²⁵⁾

1415년 태종 15년 10월 23일

황제가 우리 조정에 銅人圖를 주었다. 천추사(千秋使)²⁶⁾ 오진(吳眞)이 중국 서울[京師]에서 돌아왔는데, 예부(禮部)에서 자문(咨文)하기를,

“국왕의 자문에 준하면, ‘우리 본국에 침구방서(針灸方書)가 적어서 이자(移咨)하니 주청(奏請)하여 동인(銅人)을 내려 주면 법받기가 편하고 도움이 되겠다.’ 하였습니다. 본부관(本部官)이 성지(聖旨)를 받았었는데, ‘태의원(太醫院)을 시켜 두 개를 그리어 저들에게 주어 가지고 가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의하여 태의원에 이문하여 침구 동인(針灸銅人) 양(仰)·복(伏) 2축(軸)을 채색으로 그리어 오진(吳眞)에게 부치어 돌아가게 합니다.”라고 하였다.²⁷⁾

1415년 태종 15년 12월 14일

명하여 침구동인도(鍼灸銅人圖)를 간행 인쇄하게 하여 중외에 반포하였다.²⁸⁾

그리고 이때 『鍼灸銅人圖』를 간행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尹淮가 서문을 썼으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臣)이 삼가 살펴보니, 《명당정경(明堂正經)》은 황제(黃帝)와 기백(岐伯)이 천하 사람을 살리던 것인데, 그 뒤에 동인(銅人)에다 침(鍼)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뜻을 근본으로 하여 만든 것이다. 대개 백성이란 나라의 원기(元氣)이니, 원기가 병들면 몸도 위태롭게 되기 때문이다. 상고 시대에 성인이 예의(禮義)로 가르쳐서 그 마음을 기르고, 의식을 마련하여 그 몸을 기르며, 또 의약을 가지고 피와 기운을 길러서 원기를 보호하고, 국맥을 오래 가게 하던 것이니, 그렇다면 침놓고 뜸뜨는 법은 또한 어진 정사의 한 가지 일이다. 삼가 생각해 보니, 금상 전하께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어진 덕은 옛 성인과 똑같고, 백성을 교양하는 도(道)는 이미 지극한 곳에 이르렀는데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백성이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 자기 몸의 병과 같이 애처롭게 여겨 밤낮으로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우리나라가 바다 한 모퉁이에 끼어 있어, 용한 의원을 쉽사리 만나기 어렵고 도(圖)와 경(經)은 혹 진본과 틀리며, 침놓는 법은 완전한 것을 보기 어렵다. 그래서 영락(永樂) 을미년 여름에, 〈銅人鍼灸圖〉를 내려 줄 것을 청하였더니 천자가 옹계 여기고 태의원(太醫院)에 명하여 향도(向圖)와 배도(背圖) 두 폭을 그려 보내게 하였으니, 그 그림의 정밀함은 털끝 하나 틀림이 없어 마치 화타(華陀)와 편작(扁鵲)을 면대하여 직접 가르침을 듣는 것 같으니, 참으로 사람을 살리는 지침이었다. 전하가 즉시 명하여 그 그림을 떠서 목판에 새겨 내외에 반포하여 자손만대에 혜택을 주게 하였으니,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국맥(國脈)을 안보하려는 생각이 구비하여, 장차 이 세상을 오랜 태평성대의 지역으로 끌어올리게 되었다. 아, 참 거룩한 일이다.”²⁹⁾

25) 遣恭安府尹 吳眞 如京師，賀千秋也。就咨禮部曰：“醫藥活人，實惟重事。本國僻居海外，爲緣針灸方書鮮少，且無良醫，凡有疾病，按圖針灸，多不見効。如蒙奏聞，給降《銅人》，取法施行，深爲便益”

26) 조선시대에 명나라 황태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신 -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한국사기초사전에서 발췌, <http://yoksa.aks.ac.kr/jsp/cc/View.jsp?cc10id=C0002468>

27) 帝賜我《銅人圖》千秋使 吳眞 回自京師，禮部咨曰：“準國王咨，該本國針灸方書鮮少，移咨奏請，給降《銅人》，取法便益。本部官欽奉聖旨：‘着太醫院畫兩箇與他去’欽此，行移太醫院，綵畫針灸銅人仰伏二軸，就付 吳眞 領回”

28) 命刊印《鍼灸銅人圖》頒布中外

29) 臣謹按明堂正經。黃帝岐伯。所以活天下也。後之爲銅人驗穴者。祖其意而述之。夫民者。國之元氣也。元氣病則身且危矣。上古聖神。教之禮義。以養其心志。爲之衣食。以養其口體。申之醫藥。以調其榮衛。于以保元氣而壽國脈。然則鍼灸之術。斯亦仁政之一端也。恭惟主上殿

이상의 기사를 요약하면, 먼저 태종 15년 4월 22일 중국에 천추사로 가는 尹吳眞이 중국에 銅人圖를 요청하고, 10월 23일에 중국에서 針灸銅人 仰伏 二軸을 채색으로 그리어 尹吳眞에게 부치어 돌아오게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4일 鍼灸銅人圖를 간행 인쇄하게 하여 중외에 반포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尹淮가 序文을 썼으며 그 내용이 『東門選』에 실려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태종때 간행된 銅人圖의 모습은 첫번째, 正人과 伏人 二幅으로 되어있으며 두번째, 彩畫된 銅人圖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黃龍祥은 『中國鍼灸史圖鑑』에서 태종때 중국에서 가져온 銅人圖가 宋代 石藏用의 正伏人 銅人圖의 명대 초기 傳本일 가능성을 피력하였다.³⁰⁾ 石藏用의 동인도는 현재 전해지지 않아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明 成化十年(1474)에 鎮江府 史素가 石藏用의 正人, 伏人圖를 수정하고 채색하여 再刊하였는데 그 십이경혈은 다섯가지 색을 사용하고 임맥과 독맥의 혈은 녹색을 써서 표시하였다. 이것은 현재 日本 大阪鍼灸學校의 침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니 태종 때 반포된 銅人圖가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아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史素의 銅人圖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태종 이후 세종 시기에는 典醫監의 요청에 의하여 鑄字所에서 『直指方』, 『傷寒類書』, 『醫方集成』 각 50권을 인쇄하고 『補註銅人經』을 경상

도에서 刊板하게 하여 본감 및 해민국, 제생원에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³¹⁾ 이것으로 보아 宋代 王維一의 『銅人腧穴針灸圖經』의 경락도가 널리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三木榮은 『朝鮮醫書志』에서 조선고유의서 목록에 銅人圖 四枚를 들고 이것은 아주 큰 종이에 정면, 배면 좌측면 및 우측면의 명당침구경혈수혈도로써 예부터 醫家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종이에 寫圖로서 전하기도 하고, 목판에 새겨진 것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근래에 석판인쇄를 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³²⁾

4. 『醫方類聚』에 실린 經絡圖

① 經絡圖

『醫方類聚·傷寒門』三十卷에는 『無求子活人書』³³⁾의 6쪽의 經絡圖가 인용되어 있다. 족태양경부터 족양명, 족소양, 족태음, 족소음, 족厥음경까지 寒邪가 인체에 침입하여 전변되는 순서에 따라 실었으며, 주요한 경혈의 일부와 각 경맥이 순행하는 부위의 인체부분 명칭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첫 부분에는 각 경락의 전체적인 순행노선을 간략히 설명하고 그 경락에 寒邪가 침입했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을 소개하였다. 뒤에는 『靈樞』의 글을 인용하여 자세한 순행부위를 설명하였다.

朱肱은 최초로 『傷寒論』의 三陰三陽을 족삼음경과 족삼양경의 6개 경맥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여, 책의 제일 앞에 經絡을 먼저 논하고 經絡圖까지 첨부하였다. 그는 傷寒을 치료할 때에는 먼저 경락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경락을 알지 못하면 마치 길을 더듬으면서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같이 邪氣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

下好生之德。同符 前聖。教養之道。既臻其極。猶且嫌然。視民之疾痛痲痺。舉切吾身。而夙夜于懷。以吾東方介居海隅。良醫之不易得也。圖經之或失其真也。鍼砭之罕 見其全也。永樂乙未夏。奏請給降銅人。天子是之。勅大醫院。繪畫仰伏二軸以賜。圖之精密。毫髮不差。若目見和扁而耳承師授。誠活人之指南也。殿下卽命模本鏤板。頒布中外。以惠萬世。其仁民濟衆之念。調保國脉之慮。本末備具。固將學 斯世而躋之仁壽之域。吁盛矣哉。
- 『東文選』卷之九十三 銅人鍼灸圖小序

- 이상 원문과 본문에서의 번역은 조선왕조실록 인터넷 사이트 <http://sillok.history.go.kr/>에서 발췌하였음.

30) 주석 21번에서 밝혔듯이 北宋 石藏用이 처음 銅人圖를 그렸고, 明 成化十年(1474)에 진강부 사소(鎮江府 史素)가 石藏用의 것을 수정하였으며, 그 후 明 丘濬이 다시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上』, 青島出版社, 2003, p240

31) 金斗鍾, 韓國醫學文化大年表, 탐구당, 1982, p94

32) 三木榮, 朝鮮醫書志, 學術圖書刊行會, 東京, 1956, p126

33) 『無求子活人書』는 朱肱의 『南陽活人書』를 말한다. 朱肱은 宋代에 활약한 醫家로 傷寒을 깊이 연구하여 宋代 1108년에 『無求子傷寒百問』이란 책을 지었다. 이 책은 이후 여러 차례 교정되어 1118년에 『南陽活人書』라는 명칭을 새로 붙이게 되었다. 명대 萬曆(1573~1620)에 이르러 王肯堂과 吳勉學이 이 책을 교감하여 『增注無求子類證活人書』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줄여서 『類證活人書』라 부른다. - 진대순 증용 황정덕 엮음, 맹용재 외 9인 옮김,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2001, p45

다.³⁴⁾

따라서 『醫方類聚·傷寒門』에 인용된 경락도는 의학을 공부하는 초심자들에게 경락의 부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傷寒에 의해 經絡에 전변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어느 부위에 발현되는지 나타내는 데 더욱 중점을 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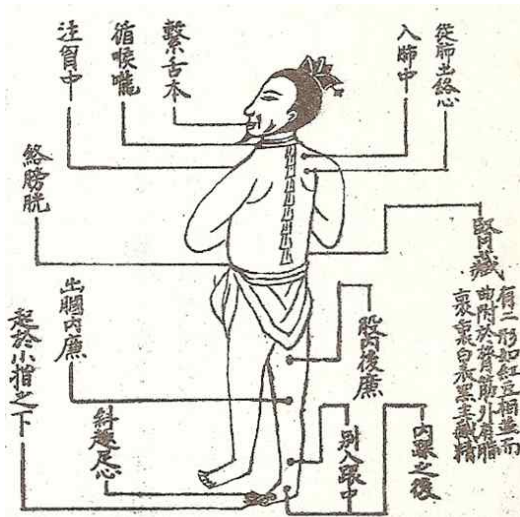


그림 8 『醫方類聚』의 足少陰經圖

그리고 朱肱의 『活人書』는 여러 판본이 남아 있는데, 여러 판본에 인용된 경락도의 모습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는 足少陰腎經圖이다. 南宋本과 元刊本 『傷寒百問經絡圖』는 모두 正面圖이며 元代에 간행된 『類證活人書』와 『醫方類聚』에 실린 元本 은 모두 背面圖이다. 사료에 의하면 『活人書』 原本의 足少陰經은 당연히 背面圖이다. 왜냐하면, 족소음맥은 脊內廉을 행하며 그 脈度는 단지 背面上에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면도로 그렸다는 것은 오류라고 할 수 있다.³⁵⁾

② 脈穴圖

脈穴圖는 腧穴圖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醫方類聚』에 인용된 脈穴圖는 전형적인 腧穴圖와

는 그 의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腧穴圖란 경혈 자리를 인체 도상에 표시한 것으로 고대에는 明堂圖 혹은 孔穴圖라고 불렀다. 이에는 全身腧穴總圖, 部分腧穴圖 등이 있다. 明堂圖에는 正人明堂圖와 伏人明堂圖, 側人明堂圖 등이 있으며 이를 ‘偃側圖’ 라고도 한다. 唐代 孫思邈이 ‘三人明堂圖’ 를 그렸다고 하며 각 경락이 속하는 오행의 속성에 따라 채색하여 그렸다고 하나 현재 전하지는 않는다. 사료를 통해 孫思邈 이후의 明堂圖를 보면 대부분 위의 세 명당도에 臟腑明堂圖라 하여 인체의 측면을 頭面과 體幹만 그리고 인체 내부의 장기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臟腑圖에 해당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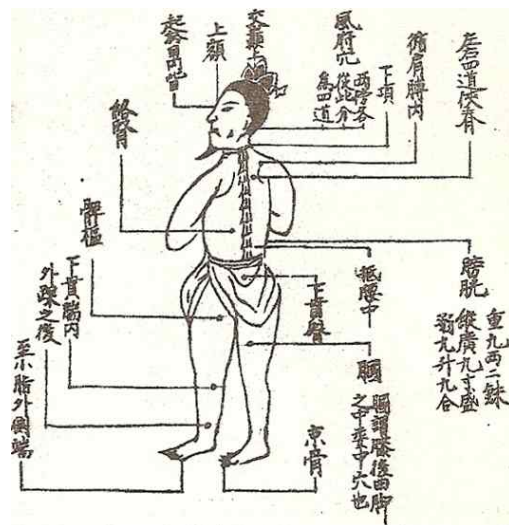


그림 9 『醫方類聚』의 足太陽經圖
다고 볼 수 있다.

張介賓의 『類經圖翼』에 이르러서는 명당도를 세분하여 사지와 체간의 각 부분을 따로 자세하게 그려서 모두 10쪽의 명당도를 그렸다. 예를 들어, ‘前面頭穴總圖’, ‘胸腹總圖’, ‘後頭項穴總圖’, ‘背部總圖’, ‘側頭肩項總圖’ 등인데, 이것은 이후 清代에 『醫宗金鑒』과 후세의 明堂圖에 영향을 미쳤다.³⁶⁾

『醫方類聚』에는 8쪽의 脉穴圖가 인용되어 있다. 이것은 『醫方類聚·傷寒門』 三十卷에 經絡圖 6圖 이후에 수록되어 있는데, 風池·風府·期門·關元·氣口·人迎·太谿·衝陽의 8개 맥혈도가 그려져 있다. 風池穴과 風府穴은 태양병의 초기에 桂枝湯

34) 상계서, p46

35)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上』, 青島出版社, 2003, p386

36) 상계서, p123

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에 필요한 치료혈의 의미로 나타내었다. 氣口, 人迎, 太谿, 衝陽穴은 穴로서의 의미보다 傷寒病에서 진맥으로서 중요한 부위임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太谿脉은 腎의 성쇠를 판단하는 穴이므로 상한병의 진단시에 필수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衝陽脈



그림 10 『醫方類聚』의 氣口脈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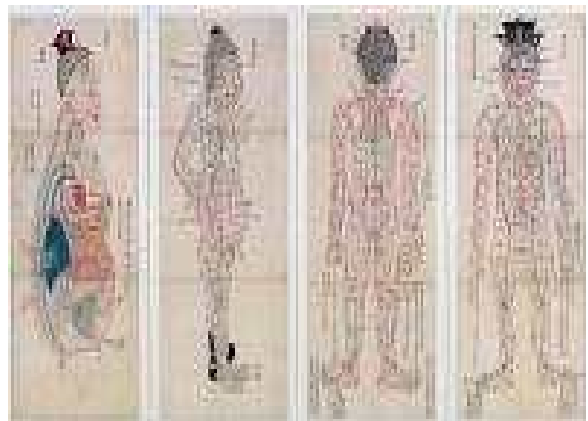
은 胃氣의 유무를 판단하는 부위로 설명하였다.

5. 여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락도

1) 현존하는 한국의 동인도는 목판본과 필사본의 2가지가 전해지는데, 필사본 중에는 채색되어진 것도 간혹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간직하고 있는 1폭의 동인도는 세로 131.5cm, 가로 54cm 크기의 동인도로 목판인쇄본이며 정면 부분이다. 동인도의 제목은 ‘銅人明堂之圖’ 라고 되어 있으며 인체의 전면에 나타나는 모든 穴位를 표시하고 穴名을 기입하였으며, 특히 8개 경맥의 기시혈과 종지혈을 도상의 주위에 따로 표시하였다. 그림의 형태와 내용으로 볼때 조선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비슷한 형태와 거의 같은 내용이 실린 동인도가 중국 청대에 重刊한 것이 있다. 이것은 4폭의 동인도로 전면과 후면, 좌측면과 우측면의 4도이다. 따라서 4폭의 동인도중 한쪽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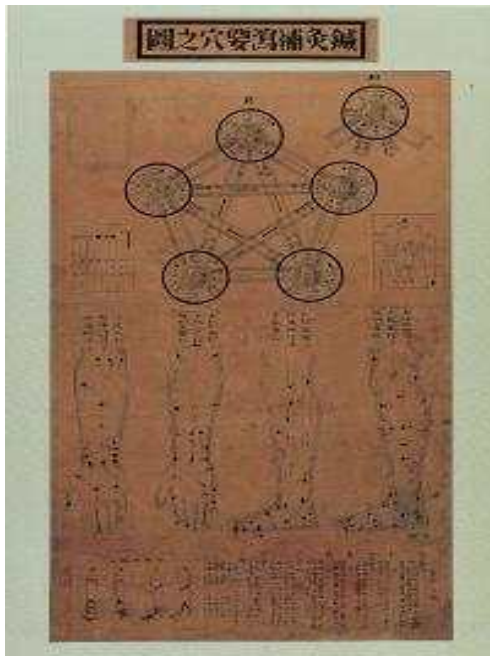
2) 현재 동서의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인도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가로 44cm, 세로 61.5cm 크기의 동인도이다. 전, 후면 각 1폭으로 되어 있고, 각 경락에 따라 채색되어 있다. 인체 내부의 골격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경맥에 위치한 혈자리가 세밀하게 위치해 있다. 이러한 銅人圖는 위에서 밝혔다시피 보통 인체의 전면, 후면 및 측면이 한 조가 되어 있는데, 측면의 한 폭이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위의 銅人圖와 비슷한 형태의 銅人圖가 중국明代의 『醫學綱目』에 실려 있다. 『醫學綱目』에서의 명칭은 正人明堂圖, 側人明堂圖, 伏人明堂圖, 臟腑明堂圖 이며 위의 두 그림은 바로 正人과 伏人明堂圖에 해당하는 것이다.

3) 경기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經絡圖



<경기대학교 소장본>

조선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종이에 가로 27.8cm 세로 61.5cm 크기로 된 경락도이다. 오장육부를 그린 장부도와 측면, 배면, 정면의 경락도로 구성된 것으로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대한제국 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종이에 가로 53.5cm, 세로 102.8cm의 비교적 큰 크기의 鍼灸補瀉要穴之圖이다. 五行의 원리를 설명하는 도상을 위에 배치하고 아래에는 四肢의 오수혈을 표시하여 임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폭의 종이에 나타내었다.

결론

1. 經絡圖는 인체를 묘사한 그림에 경혈과 경맥노선을 표시한 圖像으로 그 분류에 따라 經穴圖, 腧穴圖, 鍼灸圖, 明堂圖, 銅人圖 등 다양한 명칭이 있다.

2. 經絡圖 제작의 문헌적 토대는 『黃帝內經』이며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經絡圖는 갈홍의 『抱朴子·雜應』중에 기재되어 있고, 이름을 고증할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은 南朝의 秦承祖이다.

3. 태종 시기에는 중국에 千秋史로 갔던 尹吳眞이 針灸銅人 仰伏 二幅을 가지고 와서 鍼灸銅人圖를 간행 인쇄하였다. 이 銅人圖는 正人과 伏人 二幅으로 되어있으며 彩畫된 銅人圖이다. 연구에 따르면 宋代 石藏用의 正伏人 銅人圖의 명대 초기 傳本일

가능성이 있으며 明代의 史素가 그린 銅人圖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4. 『醫方類聚』의 經絡圖는 『無求子活人書』의 6쪽 經絡圖를 인용한 것으로 寒邪가 인체에 침입하여 전변되는 순서에 따라 실었으며, 주요한 경혈의 일부와 각 경맥이 순행하는 부위의 인체부분 명칭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이 경락도는 傷寒에 의해 經絡에 전변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어느 부위에 발현되는지 나타내는 데 더욱 중점을 둔 것이다. 또 『醫方類聚』의 8쪽 脉穴圖는 風池·風府·期門·關元·氣口·人迎·太谿·衝陽의 8개의 경혈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은 傷寒病 진단시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脉穴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6. 현존하는 한국의 銅人圖는 목판본과 필사본의 2가지이며 銅人圖의 제목은 ‘銅人明堂之圖’이다. 인체의 전면에 나타나는 모든 穴位를 표시하고 穴名을 기입하였으며, 특히 8개 경맥의 기시혈과 종지혈을 따로 표시하였다.

7. 현재 여러 박물관에 소장된 經絡圖의 종류는 다양하며 모두 조선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향후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1. 金達鎬 編譯, 注解補註 黃帝內經 靈樞, 醫聖堂, 2002
2. 辭源(縮印合訂本),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7
3. 金남일 · 이재동 공편,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집문당, 1997
4. 한의학대사전. 의사문헌편.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1985,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5.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 上, 青島出版社, 2003
6. 맹웅재 외, 강좌 중국의학사, 대성의학사, 2006
7. 金斗鍾, 韓國醫學史, 探求堂, 1981
8. 各家鍼灸學說,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2008년 1학기 대학원 교재
9. 洪元植 編著,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1987
10. 맹웅재 외, 한의학통사, 대성의학사, 2006
11.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 12.三木榮, 朝鮮醫書志, 學術圖書刊行會, 東京, 1956
- 13.진대순 · 증용 · 황정덕 엮음, 맹웅재 외 9인 옮김,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2001,
- 14.孫仁喆, 침구동인의 발달과 변천과정연구, 대한침구학회지 제15권 제2호, 1998
- 15.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한국사기초사전 웹사이트 <http://yoksa.aks.ac.kr/>
- 16.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http://sillok.history.go.kr/>
- 16.경기대 박물관 소장 경락도
- 17.동서의약박물관 소장 동인도